

# 안치홍 '20-20 클럽'으로 이종범 잇는다

(홈런) (도루)



롯데전 생애 첫 만루포 등 홈런 16·도루 14  
김성한 등 역대 24명 선수 37번 기록  
KIA, 2003년 이종범 이후 배출 선수 없어

독해진 KIA 안치홍이 20(홈런)-20(도루)를 겨냥한다.  
KIA 안치홍은 지난 9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16호이자 생애 첫 만루포를 터트렸다. 아시아게임 대표팀 탈락과정에서 심한 가슴앓이를 했던 안치홍에게 더 의미 있는 활약의 연속이다.  
안치홍은 '달라진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한다. 만루홈런이 나오기 전 안치홍은 수비에서 실수를 했다. 8회초 손아섭의 병살 타성 타구를 처리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역전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이어진 8회말 만루 기회에서 안치홍은 시원하게 챔피 언스필드 하늘을 갈랐다.  
안치홍은 "타자가 손아섭이어서 서두르다가 실수를 했다. 실수를 한 만큼 조금 더 잘해내야겠다는 생각했다. 실수를 빨리 잊자고 생각하면서 타격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예민한 성격을 다스리면서 만든 변화다. 안치홍은 "작년까지는 예민한 성격 탓에 하루하루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 스윙을 믿고 하자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꾸준하게 성적이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마인드 컨트롤"을 말하기는 하지만 하루 아침에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생각 많은 성격은 여전하다. 지난 여름 마음 고생으로 살이 3kg나 빠졌다. 소화불량까지 겹치면서 컨디션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강해져가고 있는 중이다.  
아픔을 딛고 일어난 안치홍은 당당히 20-

20클럽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0클럽은 호타준족을 상징하는 영광스런 기록이다. 1989년 김성한(해태)을 시작으로 SK 최정까지 24명의 선수가 37번 만들어낸 값진 기록이다. KIA에서는 2003년 이종범 이후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는 고지이기도 하다.  
신인 시절인 2009년 14개의 홈런을 터트렸던 안치홍이지만 2010년 홈런은 8개, 2011년은 5개로 떨어졌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3차례 그라운드를 뜰 게 전부였다.  
장타를 잃었던 안치홍이 거침없다. 6월12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 후 첫 멀티홈런을 터트렸던 안치홍은 7월11일 롯데전에서 또 하루 두 개의 홈런을 날렸다. 생애 첫 만루포까지 장식하며 자신의 홈런 기록을 경신해가고 있는 중이다. 안치홍은 9일 현재 16개의 홈런을 뽑아냈다.  
도루는 14개를 만들었다. 발목·허리가 좋지 않아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대형(20개), 김주찬(16개), 신종길(15개) 등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발들에 이어 팀 내 4위를 달리고 있다. 각종 최연소 기록에 이어 의미 있는 타이틀 하나를 더할 수 있는 기회. 안치홍은 욕심 없이 가겠다는 다짐이다.  
"20-20 기록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홈런을치고 싶다고 해서 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목표·욕심을 말하기 보다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만루홈런볼에 사인하는 안치홍 보며 선감독 "난 워낙 많이 받아서 치웠어"

### 덕아웃 특·특·특

▲"워낙 많이 받아서."  
첫 안타, 첫 승, 신인들이 첫 안타를 때리거나 첫 승을 거두면 선배들이 잊지 않고 공을 챙겨준다. 지난 9일 안치홍은 롯데전에서 생애 첫 만루포를 쏘아올렸다. 3-3 상황에서 승리를 부르는 역전 결승 만루홈런이었다. 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던 안치홍에게 공이 하나 전달됐다. 만루홈런 공을 주운 팬이 사인요청을 한 것이다. 내심 첫 만루홈런 공이라 욕심도 났던 안치홍이지만 "팬에게도 특별한 의미일 것이다"며 사인을 해서 팬에게 다시 전달을 했다. 10일 선동열 감독은 "첫 승 공이라던가 특별히 챙겨준 공이 있으시냐?"는 질문을 받았다. 선 감독은 "하나다 없어. 세월 지나면 다 의미 없어. 상받은 것도 다 처분했어. 워낙 많이 받아서"라며 끝

결 웃었다. 역시 국보 투수다.  
▲"비글처럼 만들어 주라고 그랬어요."  
강한울은 빠른 발과 재치로 김선빈이 부상 공백으로 빠진 유격수 자리를 차지한 기특한 신인이다. 그라운드에서 눈길을 끈 강한울은 덕아웃에서도 남다르다. 며칠 전 새로 받은 글러브. 흔히 자신의 배넘버와 이니셜을 글러브에 남겨주지만 강한울은 '비글 ♥'을 새겼다. 거기에 직접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비글처럼 만들어주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비글은 팬들이 지어준 별명이다. 사실 좋은 뜻으로 붙여진 별명은 아니다. 3대 악마전으로 통하는 비글은 부산하기로 유명하다. 정신없이 좌충우돌 그라운드를 뛰는 강한울을 보고 팬들이 억울스럽게 지어준 별명이다. 그 별명을 글러브에 새기고 등장한, 역시 특독 뛰는 남다른 신인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붉은 빛 '인천아시아게임' 성화

인천 아시아게임이 40일 앞둔 10일 인도 뉴델리 디안 찬드 국립 경기장에서 인도채화단원이 아시아게임 성화봉에 불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호투·호타는 계속된다

류현진, 13일 14승 사냥...추신수, ML 통산 1000안타

멈추지 않고 호투 행진을 벌이는 '괴물 좌완'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13일(한국시각)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시즌 14승과 함께 지난해 포스트시즌의 '설욕전'에 도전한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인 MLB닷컴은 13일 오전 8시10분 미국 조지아주 터너필드에서 열리는 애틀랜타와의 방문경기에 다저스 선발로 류현진이 나선다고 10일 예고했다.  
놀라울 정도로 거침없는 류현진의 최근 기세가 또 이어질지 관심을 끄는 경기다.  
류현진은 지난 8일 애인절트와의 인터리그 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2안타와 볼넷과 몸에 맞는 공 하나씩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으며 호투했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6-0으로 앞선 8회말 수비 때 제이미 라이트와 교체됐다.

지난 3일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7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잘 던지기도 승수를 쌓지 못했던 류현진은 이날 다저스가 7-0으로 이겨 올 시즌 22번째 등판 경기에서 13승(5패)를 거뒀다.  
한편, 최근 타격 감각 회복 기미를 보이는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는 올 시즌 최초로 하루 4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통산 1000안타 고지에 올랐다.  
추신수는 1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방문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 5타수 4안타를 기록했다.  
추신수가 한 경기에서 4개의 안타를 친 것은 신시내티 레드 소독이던 지난해 8월 22일 애리조나전 이후 약 1년 만이다. /연합뉴스